

정혜주(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I. 가
 II. : ,
 III. :
 IV. 가 :
 V.

I. 들어가는 말

메소아메리카의 주요 문명 중의 하나인 마야 문명은 북위 약 14도에서 22도 사이에 위치한 열대 우림에서 발전하였다.

마야 문명 최초의 피라미드로 알려진 우악삭툰(Uaxactun)의 E 그룹의 건물에서 마주 보이는 피라미드 위로 동지, 하지와 춘 추분에 해가 뜨고, 최정점에 도달하고 지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 해와 달, 화성, 셋별 등 황도 12 별들은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23.5도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지구에서 보면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물론 태양의 고도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봄과 가을의 춘분과 추분 때는 해가 적도 바로 위에 있지만 겨울에는 남반구에 있어 지구의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보면 해의 고도가 아주 낮아 보인다. 그러나 여름에는 해가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게 되어 해의 고도가 높아진다. 우악삭툰의

* Heajoo Chung(Hangyang University), "Venus en la Civilizacion Maya".

피라미드 건설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동지, 하지와 춘 추 분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점에 건물을 세워 놓은 것이다. 마야문명 최후의 발전기를 대표하는 치첸 이짜(Chichen Itza)에서는 천문대로 알려진 카라콜(Caracol) 건물이 있다. 이 둥근 건물의 벽의 창에서도 역시 계절에 따라 셋별의 최북단과 최남단의 출현점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유적의 상징인 쿠쿨칸(Kukulcan) 신전의 난간이 춘분과 추분을 전후하여 뱀이 내려오는 형상의 그림자를 이루는 것도 별들의 움직임을 아주 잘 알고 이용한 건축물이다.

< 1 >



가 : 가 ,

이 모든 것들이 마야의 피라미드와 그 부속 건물들은 천체의 움직임과 연관을 갖고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야 문명이 그 발전의 절정기에 이르렀던 고전기에는 많은 비석이 세워지고, 날짜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되는 비문을 써서 남기고 있다. 비문에는 시간이 창조된 날부터 달의 위상 변화와 황도상에서의 달의 위치를 표시하였

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별들의 위치도 묘사되어 있다. 또한 왕의 탄생과 즉위, 결혼, 적장의 생포 등의 중요한 사건들과 별들의 위치와 연관된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 마야 사람들의 천체의 움직임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연관성을 중요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마야 사람들의 주기가 끝나는 것¹⁾, 일식과 월식이 일어남에 따라 벌어질 불행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셋별인데, 셋별의 하늘에서의 위치와 그에 따라 일어난 여러 역사적 사건을 비문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마야문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막연하게 알려진 피라미드와 천체의 관계, 특히 마야 사회를 움직였던 사상체계였다고 할 수 있는 셋별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조명해보고자 한다.

마야문명은 고고학적인 편의상 그 발전단계에 따라 전기고전기, 고전기, 후기고전기로 나뉜다. 전기고전기에는 마야문명의 중요한 요소들의 싹이 튼 시기라 하겠다. 고전기는 높은 머리장식을 가진 피라미드, 상형문자와 20진법의 달력 체계 등의 오늘날 마야문명이라 일컫는 모든 것이 가장 발전된 시기이다. 후기고전기는 고전기 마야문명의 개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상체계가 무너지고 전체적이고 실용적인 사회현상이 나타났던 시기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세 시기에 따른 셋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최초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서부터 셋별전사로서의 왕의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고전기는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사회전체가 움직였던 시기로 셋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였다. 고전기 마야문명의 거의 모든 비문은 별자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서 별의 움직임과 국가운영의 직접적인 관계를 암시한다. 따라서 가장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다루었다. 대신에 셋별의 주기를 기록한 드레스덴 고문서의 다섯 가지의 셋별의 궤적과 그에 따른 의례의 형식은 본문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였다. 고전기마야의 자료가 방대함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이 시기의 셋별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후

1) 마야의 한 주기는 박툰(Bactun)이라고 하며 1.0.0.0.0으로 표시한다. 1박툰은 144,000일이다.

기 고전기 역시 셋별은 전쟁의 상징이었고 왕은 이 일을 수행하는 대리자였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셋별의 움직임에 따른 전쟁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쿠쿨칸 신전’, ‘셋별 광장’, ‘구기장’, ‘성스러운 샘’으로 이어지는 치첸 이짜의 구조와 드레스덴 고문서에 실린 노래와 같은 문장 형태로서 셋별과 나라운영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종교체계로서 바뀌어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아메리카의 고대문명이 한국의 학계에서 연구된 적이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논문 형식보다는 평이하게, 지금까지 연구된 (출판되지 않은 발표문 포함) 것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시도하였다. 마야어 원문이 있는 드레스덴 고문서외에는, 인용된 외래어 문장은 필자에 의한 번역만 실었다.

II. 최초의 피라미드: 왕, 피라미드와 별의 관계

마야사람들이 최초로 세운 피라미드는 기원전 약 60년 경에 현재의 벨리제(Belize)의 세로(Cerro)의 강가에서 발견되었다. 진흙을 단단히 말려서 지은 흙으로 된 3층의 비교적 단순한 것이지만 왕과 해와 셋별이 연관된 상징을 표현한 네 개의 얼굴이 돌을새김 되어 있었다.

낮의 열이 아직 남아있는 오후, 하얀 지붕의 그림자가 땅거미를 이 루는 무렵, 마을 사람들은 담벽 그늘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 해안으로부터 소라고동 소리가 들렸다. 무역선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채색된 면직물의 옷을 입고 여러 장식을 단 나이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어른들이 앞서 나가고,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해안으로 달렸다. 카누에는 화려하게 차린 방문객들과 마을의 어른들에게 갖고 온 선물들이 가득했다. 요란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들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신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귀와 팔에서 뽑은 피를 모은 종이를 태우는 엄숙한 의식이 갑판에서 행하여 졌다.

이윽고 모두들 배에서 내려왔다. 해가 서쪽 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지하의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되자 어른들은 잔치를 시작했다. 꿀술이

든 마지막 옥수수 빵은 해와 그의 형제 셋별(새벽별)이 지하세계의 여행을 끝내고 동쪽바다로 다시 떠오를 때까지 손대지 않았다. 가장 나이든 방문객이 신의 얼굴이 조각된 다섯 개의 옥으로 된 자그마한 조상들을 꺼내었다. 모두 목에 걸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한 개는 다른 네 개보다 조금 더 컸다. 방문객은 왕을 상징하는 이 조상들을 그들의 왕국에서부터 들고 온 것이었다.²⁾ 세로는 오랫동안 왕이 없이 지냈으나 이제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유하고 강성했다. 이제 세로(Cerro)의 존장도 단순한 귀족에서 세상의 신성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왕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했다. 세로의 존장은 이미 여러 전쟁에서 전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 신들과 시발바(Xibalba)의 조상들에게 바치는 제례 의식에서 인정을 받았다.³⁾ 방문객으로부터 이 조상들이 든 주머니를 받은 장로들은 그것들을 단지에 넣고 붉은 종이로 막은 다음에 기다렸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수락하자 점쟁이들과 그동안 기도와 인신공양을 해 왔던 무당들의 축복이 이어졌다.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적이 될 것이나 마을은 새로 오는 사람들로 더욱 번창해 갈 것이다.

두 세대가 지나는 사이에 세로는 마을에서 아크로폴리스(acropolis)⁴⁾로 자랐다. 세로의 사람들은 도시를 재건했다. 그들은 살던 집과 쓰던 기물들을 모두 깨고 살던 곳 위를 새로운 광장으로 덮었다. 그들의 과거는 모두 광장 밑에 있게 되었다.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었으나 그가 남긴, 기원전 약 60년경에 세워진 흙으로 된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피라미드는 세 층으로 되었고 각 층마다 두 개의 얼굴이 조각되어 두 층을 이루고 셋째 층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의 모습으로 끝난다. 둘째 층까지는 각 층마다 4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둘째 층에서 세 번째 층까지는 9계단으로 이루어졌다. 맨 위의 세 번째 층의 건물은 구조가 특이하다. 사람이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면 벽면과 부딪힌다. 뒤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른쪽으로 꺾어서 똑바로 가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을 돌아서 갔던 길을 되돌아 와야만 나올 수 있다. 각 층마다 양쪽으로 두개의 얼굴, 모두 4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네 개의 얼굴은 비슷해 보이나 조금씩 다른 장식 문양을 갖고 있다. 아래쪽의 얼굴은 널름거리는 재규어의 혀

-
- 2) 마야 세계는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하우(Ahau)가 지배하는 큰 국가와 그 보다 낮은 급으로 카할(Kahal 또는 사할Sahal)이 국가가 있었다. 카할은 대개 강력한 아하우와 연관을 맺었다.
 - 3) 시발바는 마야의 지하세계를 일컫는 말, 포퓰부에 의하면 마야 사람의 최초의 선조는 시발바에서 살아 돌아왔다.
 - 4) 아크로폴리스는 피라미드와 구기장, 궁성과 부속 건물이 모여 있는 제의식을 행하는 건물군으로 마야 사회의 도시 발전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를 보이고, 위쪽의 두 얼굴은 천체의 운행과 관련된 우주 괴물의 특징인 긴 코를 갖고 있다. 귀의 양쪽도 조금씩 다르게 장식되어 있다. 각각의 머리에는 마야 왕이 쓰는 3개의 보석이 박힌 머리띠의 문양과 같은 띠를 두르고 있다. 마을의 장로들은 새로운 신전을 위한 제의식을 준비하였다. 의례의 음식을 담았던 접시를 깨뜨리고, 수선꽃⁵⁾을 신전 기초의 하얀 흙 밑에 묻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 세상과는 다른, 천상과 지하의 세계를 이 지점에서 가까이 하게 되는 길이었다.

(Schele & Freidel, 1990: 98-106)

벨리제의 쉼로에서 발굴된 유물과 피라미드에 남긴 것들을 재구성해 본 이야기로 왕들의 숲에서 발채하여 간추렸다. 쉼로에서는 초기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 구조의 건물군과 옥으로 된 조상들, 그리고 바닥 아래층에서는 전 시대의 토기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네 개의 얼굴을 지닌 피라미드의 의미는 과테말라의 우악삭툰의 E 건물과 비슷한 시기의 피라미드들이 세워진 위치와 별들이 뜨고 지는 방향과 매우 일치한다는 것이 발견된 후, 돌을새김의 장식이나 얼굴 모습의 표현이 천체와 관련된 신화와 긴밀하게 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미쳤다.

마야 사람들의 생각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포폴부(Popol Vuh)이다. 포폴부에서 처음 나오는 쌍둥이 주인공은 여명과 밤의 신의 아들인 쌍둥이 운 우나푸(Hun Hunapu)⁶⁾와 부릅 우나푸(Vucub Hunapu)이다. 그들은 공놀이를 하며 세월을 보내다 어느날 공놀이의 소란스러움에 화가 난 지하세계 신들의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네 갈래 길에 도달하여 지하 세계로 이끄는 검은 길을 택했다. 쌍둥이들은 어둠의 집, 호랑이의 집, 불의 집, 박쥐의 집, 칼날의 집 등 많은 곳에서 시험과 고통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운 우나푸의 잘린 머리는 나무에 걸려 있었는데, 지하세계 신의 딸이 이를 보러 왔다가 아이를 갖게 된다. 그녀는 지상으로 나

5) 마야 사람들에게는 물에서 피는 수선은 지하 세계와 연관이 있으며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상징한다.

6) 마야어로 Hun은 하나, Vucub은 일곱, Hunapu는 사냥꾼, Xbalanque는 새끼호랑이를 의미한다.

와서 다시 쌍둥이 형제를 낳았다. 우나푸(Hunapu)와 스발란케(Xbal-anque)이다. 그들도 역시 공놀이를 즐기다 지하세계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은 아버지와 삼촌이 받았던 지하세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지하세계의 신들을 뜻을 간파하고 스스로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뺏가루를 강에 뿌리자 그들은 곧 청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다고 믿는 지하세계의 신들을 찾아가 계략으로 이 신들을 완전히 멸망 시켰다. 그들은 죽은 아버지와 삼촌에게 제사를 지내고 부활시켜서 마야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였고 그들 자신은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

이야기의 중심은 제1세대에서 제2세대로 이어지는 쌍둥이와, 그와 함께 반복되는 사건의 전개이다. 마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선조인 쌍둥이는 신의 아들로써 지상에 내려와 살다가 지하 세계로 불려가서 죽었다. 그러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난 이들의 쌍둥이 아들들은 지하세계의 힘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버지와 삼촌을 부활시키고 그들은 하늘로 돌아가 다시 신이 되었다. 이 제2세대 쌍둥이는 하늘의 힘(아버지)과 지하세계의 힘(어머니)이 합해져서 어둠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조건과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쌍둥이라는 조건, 공놀이를 하였고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제2세대에서는 죽임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 온 존재가 지하로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순환이 있고, 같은 행동의 반복이 있다. 왜 꼭 공놀이를 하며 쌍둥이였을까? 최초의 피라미드가 천체를 관측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이야기도 별들과 관계있을 것이다.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마야 사람들이 관측한 별자리들은 여럿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독된 것은 보남팍(Bonampak) 유적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네 개의 별자리로서, 화성, 토성, 오리온자리와 쌍둥이자리로 밝혀졌다(R. Bricker & M. Bricker, 1992; Freidel et al., 1993; Miller, 1995). 겨울철에 특히 뚜렷이 보이는 오리온자리에서 쌍둥이자리를 바라보면 두 명이 어우러져

움직이는 듯이 느껴지는데, 수많은 별들이 등글게 보이는 하늘을 움직이는 모습은 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 2 >



, 2002

)

(/

다른 한편, 마야 사람들은 하늘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로서 셋별과 해를 주목했다. 신화에서는 해와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것은 에스파냐의 신세계 정복⁷⁾ 후 약간 왜곡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셋별이 주목된 것은 바로 셋별이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직후에 가장 밝게 뚜렷이 보일 뿐 아니라, 한번 뜨면 지는 다른 별들과는 달리 새벽과 저녁에 나타나는 이중성 때문일 것이다. 셋별은 아침과 저녁에 나타남으로 해서 하나이면서 둘인 쌍둥이를 표현함과 동시에 이를 주기적으로 되풀이 하는 순환의 성격도 보여준다. 쉼의 피라미드의 조각들을 살펴보면, 아래쪽의 얼굴은 짧은 코에 혀가 நீ름거

7) 1521년 에르난 코르테즈가 이끄는 에스파냐 군은 아즈테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숲 속에 남았던 마야 사람들을 정복했다. 포폴부는 입으로 전하던 마야의 전설을 정복 후 모아서 기록된 것으로 이미 유럽화 되어 왜곡된 부분이 더러 보인다.

리는 재규어가 나오는 모양이다. 뺨에는 해를 의미하는 킨(Kin)이 쓰여 있는데, 이로써 재규어는 태양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라미드의 위층 얼굴은 셋별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즉 쌍둥이 중의 동생인 스발란케(새끼 재규어)가 태양을 상징하고 형인 우나푸(사냥꾼)는 셋별과 관련된다. 더욱이 이 얼굴들은 하늘에서의 운행과 관련된 우주의 괴물의 특징인 긴 코를 갖고 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관은 마야 왕이 쓰는 3개의 보석이 박힌 머리띠의 문양과 같다. 왕관의 중요 상징은 가운데에 세 점이 솟아오른 산 모양의 장식이다, 이는 문자 체계에서 아하우(Ahau)라 읽는다. 머리띠의 위쪽은 우나푸이며 해(킨)의 문양이 있는 아래쪽은 아우인 스발란케이다. 즉, 세로의 장식은 우주괴물, 해를 나타내는 킨 글자, 왕을 나타내는 아하우 표시 등 천체와 왕권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3 >



(Schele & Miller, 1998)

피라미드 건설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정상의 신전이다. 신전 앞에 서면 동 쪽에서 떠오르는 해와 서 쪽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다. 신전에는 네 기둥이 있다. 신전은 네모진, 창이 없는 어두운 공

간이다. 조각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이 칠하여진 기둥은 우주의 네 귀퉁이를 상징한다.⁸⁾ 이렇게 만들어진 성스러운 공간에서 왕은 우주의 한 요소가 된다. 신전의 앞문은 중앙에 있지만 네모진 신전은 가운데 벽에서 동쪽 끝으로 지어져 있다. 왕은 서쪽에서 통로를 따라 동쪽 끝에 있는 제단으로 간다. 이렇게 방을 들어갔다 나오기 위해 왕은 중앙의 정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을 돌아 뒤 쪽 통로의 중앙을 지나고 동쪽 끝에 있는 제단에서 조상들과 신들을 만난 뒤, 다시 서 쪽으로 돌아 나와야 한다. 즉 시계 반대 방향, 해가 동 쪽에서 떠서 서 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걸음을 하게 된다. 피라미드의 얼굴은 아침에서 밤이 되는 직선적인 시간과 밤에서 다시 아침으로 되 돌아오는 순환적인 시간을 보며 서 있다. 그리고 왕은 갔던 길을 되 돌아 나온다. 다시 말해서 왕은 순환을 반복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마야 왕권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즉, 마야의 왕들은 마야 사람들의 조상이 된 우나푸, 셋별의 후예로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였다.

III. 셋별 전사: 마야문명을 이루게 한 것

대부분의 비문은 날짜 기록부터 시작하여 왕들의 태어남과 죽음, 결혼, 전쟁을 하여 몇 명을 포로로 하였는가를 기록한 연대기인데, 특이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날만이 아니라 그 때의 천체의 움직임이 어떠하였는지를 함께 기록한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마야 문명⁹⁾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에 여러 유적지에 세워진 비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8) 마야 사람들은 우주는 네 방향으로 나뉘고 가운데에 중심이 있다. 즉 포볼부에 나오는 네 방향의 길에 선 쌍둥이의 모습은 우주의 가운데에 있는 서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9) 마야는 도시 국가 사회였다. 고전기 마야 문명이 발달하였던 과테말라의 페텐 지방, 온두라스, 멕시코의 우수마신타강 유역에는 카라콜, 티칼, 나랑호, 팔렌케, 보납팍, 등 크고 작은 도시 국가가 3000개 이상 있었다.

626년 5월 28일 (9.9.13.4.4),¹⁰⁾ 카라콜(Caracol)의 왕 칸(Kan) 이세는 나랑호(Naranjo)를 총공격을 하였다. 이 날 셋별은 새벽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좋은 위치였다. 이 전쟁에서 잡힌 포로는 630년 10월 4일 공놀이가 벌어진 이 날 희생을 당하였다.

631년 12월 27일, 나랑호의 하늘에 셋별이 저녁별로서 처음 나타났을 때 카라콜의 칸 이세(Kan II)는 다시 나랑호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이때가 티칼(Tikal), 나랑호(Naranjo), 우악삭툰(Uaxactun)까지 카라콜의 승리의 희생이 되었다.

642년 12월 6일(9.10.10.0.0), 카라콜의 지배자는 나랑호에서 잡혀 온 포로들에게 피라미드를 세울 것을 강제했다. 세운 후에는 공놀이를 하여 그들을 희생했다.

645년 7월 5일(9.10.12.11.2), 도스 필라스(Dos Pilas)의 부싯돌-하늘-K신(Flint-Sky-God K)이 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정복이라는 역동적인 전통을 계승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664년에서 684년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나라들을 공포로 밀어 넣었다. 부싯돌-하늘-K신은 카라콜을 물리치는 한편 같은 편이었던 칼라크몰의 재규어-발(Jaguar-Paw)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부싯돌-하늘-K신은 재규어-발의 즉위식에 참석하는 등 협약을 맺었다. 나랑호에는 딸 왁-차닐-아하우(Wac-Chanil-Ahau)를 담배피는-다람쥐(Smoking-Squirrel)에게 시집보냈다.

658년 6월 22일(9.11.5.14.0), 카라콜의 B18과편에 "연기-두개골"의 왕위 계승이 있었다. 셋별은 새벽별로서 황소좌와 나란히 45.4도에 있었다.

658년 2월 11일(9.11.5.7.9), 큐도시(site Q)의 비문 2에서는 쿡 아하우(K'uk Ahau)의 왕위 계승이 있었는데 이때의 셋별은 저녁별로서 양좌와 나란히 46.2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667년 9월 19일 (9.11.15.2.16), 큐도시(Site Q) 비문 9에는 칼라크몰(Calakmul)왕의 형제인 착납칸(Chak Nab Kan)이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저녁별로서의 셋별이 전갈좌의 머리 부분과 나란히 46.7도에 있었다. 또한 큐도시는 668년 9월 10일(9.11.16.2.3), 도스 필라스(Dos Pilas)를 상대로 싸운 기록이 있다. 이때는 새벽별로서 천칭좌와 나란히 45.6도에 위치하였다.

나랑호의 담배피는-다람쥐(Smoking-Squirrel)은 우카날(Ucanal)을 상대로 그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다. 693년 6월 20일은, 이 다섯 살짜리 왕이 즉위한 지 20일째 되는 날 이었다. 그것은 하지 전 날이었고 저녁

10) 마야의 달력 체계, 긴 주기는 13.0.0.0.(144,000일 x 13)이다. 시작하는 날은 13.0.0.0.4 이하우 8 콤쿠,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이다. 그 다음 날은 0.0.0.0.1 4 아하우 9 폼이 된다.

별은 그 마지막 빛을 비추고 새벽별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사라짐을 시작하였다. 그의 첫 번째 포로는 키니치-갑(Kinichil-Cab)이었다.

693년 9월 14일, 담배피는-다람쥐가 아직 다섯 살에 불과한 고로 그의 어머니가 포로 방패-재규어(Lord Shield-Jaguar)를 밟고 서 있다. 즉 그의 권력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이때부터 전쟁의 별은 나랑호를 위하여 빛났다. 담배피는-다람쥐(Smoking-Squirrel)도 그 옛날에 카라콜(Caracol)의 지배자가 했던 것처럼 셋별의 위치에 전쟁과 의식의 시간과 날짜를 맞추었다. 그는 아래쪽 합이 일어나기 전, 즉 셋별이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동안 셋별 전사로서의 그의 왕권을 선언했다. 그의 첫 번째 전쟁은 셋별이 하지 전날 저녁에 해와 같은 시간에 지는 때에 시작했다. 그는 정확히 한 주기(Cycle) 후, 셋별이 새벽별로서 태양과 함께 뜰 때 우나칼(Ucanal)에 대해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710년 3월 23일, 담배피는-다람쥐(Smoking-Squirrel)은,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도스 필라스(Dos Pilas)의 부싯돌-하늘-K 신과 칼라크물(Calakmul)의 재규어-발이 전에 행동했던 것처럼, 약스하(Yaxha)를 공격하였다. 이 날 셋별은 새벽별로서 마지막으로 보였고, 목성과 토성은 그들의 두 번째 움직이지 않는 점에서의 합을 이루었다.

97일 후 6월 8일, 하지가 막 지난 뒤, 목성, 토성, 화성과 셋별, 그들은 하늘에서 더욱 장엄하게 정렬했다. 이 때 담배 피는-다람쥐는 약스하(Yaxha)에서 온 포로를 희생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일년 후, 711년 4월 12일, 셋별이 다시 새벽별로서 나타났을 때 담배 피는-다람쥐는 Yaxha 근처의 사크납(Sacnab)으로 다시 한 번 전쟁에 나갔다.

200일 뒤, 712년 6월 22일 우카날의 방패-재규어가 다시 제전에 나타났다. 잡힌 뒤 18년이 지난 이날 비로소 그는 생을 마친듯하다. 이날은 셋별이 저녁별로서 가장 오랫동안 보였다.

담배피는-다람쥐는 포로를 살려두고 여러 번 제의식에 불리냄으로써 나랑호의 실력을 전 페텐(Peten) 지방에 과시하는 한편 약스하(Yaxha)호수 근처를 평정함으로써 나랑호(Naranjo)와 도스 필라스(Dos Pilas) 사이의 길의 위험을 없앴다. 담배피는-다람쥐는 셋별의 움직임에 따라 전쟁을 하였다. 셋별의 움직임에 의한 그의 행위는 또한 하늘을 재정렬하여 그 자신의 선조, 첫 번째-지배자의 패배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557년에서 692년 사이에는, 티칼(Tikal)의 방패-두개골(Shield-Skull)은 북쪽 아크로폴리스와 동쪽 광장 등, 티칼의 재건을 시작하였다. 부싯돌-하늘-K 신(Flint-Sky-God K)과 그의 딸, 왁-차닐-아하우(Wwac-Chanilhau)를 나랑호(Naranjo)에 시집보낼 때 방패-두개골(Shield-Skull)의 아들, 이호-카카우(Ah-Cacaw)는 티칼의 왕위를 이어 받았다. 신전33의 건축은

695년 3월 3일(9.13.3.0.0)에 끝났다. 158일 후, 아흐 카카우(Ah Cacaw)는 칼라크물(Calakmul)의 재규어-발(Jaguar-Paw)을 잡았다. 이것은 카랄콜(Caracol)이 나랑호(Naranjo)에게 한 전쟁, 68년 후 담배피는-다람쥐가 우카날(Ucanal)에서 한 전쟁과 같은 유형의 전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전쟁은 천체적인 의미가 훨씬 많이 있었다는 점이다. 해가 천정점을 지나간 뒤 이틀 후, 아흐-카카우는 폭풍치는-하늘(Stormy-Sky)의 전쟁의 13번째 카툰(Katun)을 기념하는 내용을 31번 비석에 남겼다. 13일 후 그는 포로에게 의식을 행하였다. 포로는 재규어-발의 동료였거나 신하였던 아흐-볼론-바킨(Ah-Bolon-Bakin)이었다.

즉 아흐-카카우(Ah-Cacaw)는 칼라크물(Calakmul)에 대한 전쟁을 13번째 카툰(13x20= 260일)¹¹⁾에 시간을 맞추었다.

(Schele & Freidel, 1990; Schele & Grube, 1994)

비문에는 셋별의 움직임 기록과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김과 짐을 되풀이하며 포로를 희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전쟁을 되풀이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의 별이 움직임이 그 일이 일어났던 때와 같은 상태가 반복되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왕은 하늘의 움직임을 지상에 나타내는 존재였다. 그리하여 일식과 월식도 기록되어 있으나, 별들의 정렬과 혜성, 특히 셋별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즉 해의 움직임에 따라 셋별이 어떻게 보이는가, 셋별이 저녁에 보이는가, 아침에 보이는가. 어느 때에 셋별이 보이지 않는가. 셋별이 특정위치에 있을 때 다른 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특히 전쟁에 관한 한 셋별의 움직임은 절대적이다. 비문에 의하면 저녁별로서 보일 때는 왕위 계승 등 왕권의 변화가 많았던 반면 새벽별로 나타날 때는 승리의 좋은 징표라 하였다. 마야 사람들이 셋별의 움직임에 가장 관심을 둔 또 다른 이유는 셋별이 지나는 독특한 주기성 때문인 것 같다. 셋별은 236일 동안 아침에 동쪽에서 보인 후 태양과 매우 가까이 뜬으로 해서 8일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저녁별로서 서쪽에 뜬다 이 기간은 250일간 계속 된 뒤 90일간, 역시 태양과의 근접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584일이 지남으로

11) 마야의 여러 달력 체계중의 하나로 20일과 13달을 잇는 260일을 한 주기로 하는 종교력.

해서 셋별의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가 같은 공식으로 반복된다 (애브니, 1997: 202-8). 장대한 긴 주기의 날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천문 관찰은 기본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정확히 쓸 수 있는 마야 달력 체계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력에 맞추기 위하여 왕이 태어난 날 등 실제 일어난 날짜를 왜곡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즉 남아있는 기록은 실제에 사용된 것보다 왕이 하늘의 일의 대리자로서 행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8, 236, 250, 90의 주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전사로서의 왕의 움직임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셋별전사로서의 왕의 전쟁 수행이 가장 격렬하게 표현된 곳은 아마도 보남팍(Bonampak)일 것이다.

< 4 >



(Miller, 1995)

보남팍의 왕이었던 찬 무안 이세는 776년 6월 11일에 등극하였다.

셋별과 화성의 회합이 6월 2일, 즉 9일 전에 관측됨으로써 신들이 동의한, 축복 받은 즉위였음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그는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했는데 비문과 여러 건물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일, 즉 달력주기를 기념하는 일을 수행했다. 아호 호 책(Ah Ho Tzek)과의 싸워 그를 787년 1월 8일에 포로로 하였다는 것이 찬 무안 이세의 첫번째 기록이다. 바로 전, 787년 1월 4일에도 싸움이 있었는데, 그는 동서인 약스칠란(Yaxchilan)의 과갈 발람 이세(Pacal Bahlum II)와 함께 소츠 아호 쿠(Zotz Ah Cu)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했던 동안에는 해가 셋별의 위로 가장 근접해서 떠 있어서 셋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셋별이 새벽별이 되는 때가 가까웠음도 의미 하였다. 즉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보일 때가 8일 남았다. 또 다른 일은 792년 11월 11일 찬 무안 이세가 카사 세이스 마르(Casa Seis Mar)를 헌정할 때였다. 이 때 도 역시 해가 셋별의 위로 가까이 떠있어서 셋별이 보이지 않았고, 전쟁은 792년 8월 2일에 있었다. 찬 무안 이세가 아호 호 치바(Ah Hok' Chiwa), G112)의 머리칼을 잡고 있는 모습이 현정된 건물의 벽에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해가 셋별 바로 아래 있는 때가 시작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9일간의 사라짐이 시작된 것이었다.

(Arellano, 2001: 36-41)

이 전쟁은 찬 무안 이세의 즉위 1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여졌는데 등장인물들이 1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누구를 공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보남팍의 전쟁 기록은 셋별이 사라졌던 날에 있었고 기록을 남긴 날은 셋별이 다시 나타났던 날이다. 즉 그들에게는 정복 대상이 누구였는가 보다는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셋별이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 있었는지, 왕이 전쟁을 하여 희생을 바침으로 해서 어떻게 천체의 운행을 제대로 돌려놓았는지가 더 중요했다. 건물 1의 두 번째 방의 벽화에는 찬 무안 이세의 다리에 셋별을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어 그 자신이 셋별로서 싸웠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같은 건물의 첫째방의 벽화에 그려진 축하의 행렬에서 눈이 별로 표현된 여러 신들과 옥수수의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로써 찬 무안 이세의 행위가 별들을 나타내는 여러 신들로부터 추앙 받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벽화의 맨 위에 쌍

12) 팔렌케에서 확인된 마야의 주신인 G1, G2, G3중의 하나이다.

등이좌의 멧돼지, 화성, 토성, 거북이로 표현되는 오리온좌의 4개 성좌가 걸려 있는 것은 이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상에서의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의 반영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포블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셋별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며 왕권을 지속하던 마야의 역사는 후기에 와서 조금 양상이 바뀌었다. 더 이상 비문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고문서를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숫자의 나열과 함께 사람과 비현실적인 동물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형상들로 별들의 움직임과 변화를 기록하였다.

IV. 다섯가지 움직임의 셋별: 새로운 사회로의 시도

드레스덴 고문서는 마드리드, 파리, 글로리에르 고문서와 함께 전해지는 고대 마야 문명의 유산으로 전해지는 책이다. 이 고문서에서는 해와 달의 주기, 일식의 관찰, 그리고 셋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마야 상형문자로 주기를 나타내는 숫자와 그에 연관된 내용이 쓰여 있고 그림도 덧붙여 있다. 1950년, 유리 노로조프가 마야의 상형문자가 음절로 되었다는 기초 위에 드레스덴과 마드리드의 고문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숫자를 계산한 바를 발표하였다(Knorozov, 1982). 완성본은 1982년 뉴욕에서 출간 되었다. 내용은 해, 달, 셋별의 주기의 관찰과 그에 따른 파종, 수확, 한발, 우기 등 농작의 순서와 여러 재해에 관한 내용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1992년과 1997년에 있었던 마야 상형문자 워크숍에서¹³⁾, 린다 쉘리와 니콜라이 구르브도 역시 음절에 기초하여 읽었으나, 내용을 상당히 다르게 해석하였다. 새로운 해독을 요약한 1997년의 텍사스 노트북에는 드레스덴 고문서의 내용이 해와 달의 일식과 월식 주기표와, 또한 셋별의 주기

13) 린다 쉘리와 니콜라이 구르브가 이끈 것으로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열렸다.

에 따라 다섯 형태의 셋별을 상징하는 신이 다른 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설리와 구르브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셋별에 대한 내용은 고문서 45쪽에서부터 50쪽까지 볼 수 있다. 왼쪽에는 세 단으로 나누어진 부분에 셋별의 주기율표가 마야 숫자 체계로 적혀져 있다. 오른쪽에는, 역시 세 단으로 나누어졌는데, 맨 위에는 하늘의 모습이, 두번째 단에는 셋별이 공격하는 모습이, 세번째 단에는 피해를 입는 존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각각의 단에 마야 상형문자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셋별의 주기율표는 생략하고 오른쪽의 이야기만 해석하였다. 다음은 셋별에 대한 내용을 왼쪽에는 마야어로 읽은 원문을, 오른쪽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다. 여기에는 하늘에서 움직임이 있어(별자리의 이동) 신이 들어서고, 신의 뜻을 받아 셋별이 지상에 행동한다, 불행히도 그 신의 뜻은 지상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쓰여진 형식은 시적으로, 같은 단어와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각 장의 구성도 똑같다. 이는 수많은 셋별과 관련된 제의식에서 읽혀졌을 것이다.

< 5 >





46

50

(Codice de Dresde, 1993

)

45쪽

4 Ahau 8 Kumku
 yok(동사), [...]14)
 [...] li Chak Ek'
 lak'in k'alah
 Chack Ek' K'an Pawahtun
 Chack Ek' Na Ahaw Uh
 Chack Ek' Hun Ahaw
 Chak Ek' Ain
 Chak Ek' Kimi
 U muk kab
 U muk u kun
 U muk winik
 Xul, K'in
 Xul habs
 Hun Kanal
 Ah Tzuk Ahaw

4 Ahaw 8 Kumku
 yok
 God L
 Chak Ek'
 Lahun Chan
 Chak Ek'
 Yah k'awil
 Yah Chak Boley
 Yah Nal
 Yah [...]
 Yah [...]

4 아하우 8 콤쿠
 들어섰다,[?] 그의 근원 또는 시작
 [...] 도착했다[?]15), 셋별이
 동쪽에 매였다
 셋별, 4 과와흐툼
 셋별, 성스러운 달 숙녀
 셋별, 1 아하우
 셋별, 악어
 셋별, 죽음의 신
 땅에게 나쁜 예언
 옥좌에게 나쁜 예언
 사람들에게 나쁜 예언
 날의 마지막
 해의 마지막
 하나의 하늘
 텍수염 신

4 아하우 8 콤쿠
 들어섰다
 L신
 셋별
 10 하늘
 셋별
 카윌의 다침
 착볼로이의 다침
 옥수수 신의 다침
 개구리 신의 다침
 신의 다침[?]
 (Schele & Grube, 1997: 142)

동사 욱(yok)은 밭을 놓다 또는 기저를 의미하거나, 들어오다 또는 무엇이 되다는 뜻이다. 즉 별이 하늘에 나타남을 보인다. 동쪽에 매였다는 것은 셋별이 동쪽으로 뗏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저녁별이

14) [...]는 고문서가 훼손되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 하였다.

15) [?]은 해석에 불확실한 경우를 표시 하였다.

다. 동사 야(yah)는 상처를 입히다, 손상을 입히다는 뜻.

45쪽은 다음 쪽에 일어날 사건들의 전체적인 대략을 보여주고 있다. 4아하우 8콤포쿠는 마야의 전설에서 세상이 시작된 날이다. 즉 하늘의 움직임이 시작된 날에 다섯 셋별 신의 도착과 하늘에 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4 과와흐툼은 지상의 세계를 받치는 네 명의 신들이며, 1 아하우는 달력이 시작하는 첫 날이다. 약어는 대지를 상징하며 생명을 표현하기도 한다. 달은 풍요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다시 반복하게 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셋별이 지상의 근본적인 것을 상징하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인간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을 느끼게 한다. L신과 10하늘(라훈 찬)로 묘사된 셋별은 카윌, 착 볼로이, 옥수수신, 개구리신,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신을 다치게 한다. 이로써 셋별의 등장은 지상에,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임을 보인다.

46쪽

[...] [...] nal	[...] [...] 옥수수
[...] yah kanul	[...] 앓은 자들에게 재난
[...] yah ch'ok	[...] 젊은이에게 재난
K'alah nah ulum Chak Ek'	셋별이 북쪽 칠면조에 매인다
K'alah chik'in sinan Chak Ek'	셋별이 서쪽 전갈에 매인다
K'alah nohol Chak ?? Chak Ek'	셋별이 남쪽 큰?? 매인다
K'alah lak'in Kimi Chak Ek'	셋별이 동쪽 죽음의 신에 매인다
K'alah lak'in	동쪽으로 매인 것은
God L Chak Ek'	L신 셋별
K'awil u hul	카윌은 창에 찔렸다
Yah? K'al, yah winik	20에게 재난, 사람에게 재난
U muk hun ka yax K'an	그것은 예언, 2-과랑-노랑
Yah Nah, yah wilil	옥수수신에게 재난, 음식에 재난
Ain tzeni Chak Ek' lak'in	까마귀는 셋별을 동쪽에서 먹인다
Ulum tzeni Chak Ek' nah	칠면조는 셋별을 북쪽에서 먹인다
Shan tzeni Chak Ek' chik'in	전갈은 셋별을 서쪽에서 먹인다
Chak [...] tzeni Chak Ek' nohol	큰[...] 셋별을 남쪽에서 먹인다

Ka uh winik ʔ u muk	두번의 달들(달력)의 달이 묻혔다
Pop tz'am u muk	명석과 왕좌가 묻혔다
Mach 'ab si Ahaw	평평해진 것은 왕들
Mach'ab si ch'ok	평평해진 것은 왕자들

(Schele & Grube, 1997: 146)

한 신이 두 개의 별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두 겹의 하늘띠 위에 앉아 있다. K신, 즉엡(Eb)해¹⁶⁾의 수호신의 머리가 하늘 띠의 왼쪽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애브니(1999: 184)에 의하면 셋별의 운행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사라졌던 셋별이 다시 새벽하늘로 돌아오는 시기이다. 셋별과 해의 출현 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사건은 셋별의 신이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날짜는 10.5.6.4.0. 1아하우(Ahau) 18카얍(Kayab),¹⁷⁾ 936년 6월 21일, 하지로서 셋별은 저녁별로서 보이고 있다 (R. Bricker & M. Bricker, 1992). L신은 상인들의 늙은 신이다. 이 쪽에는 L신이 셋별을 나타내는데 세번째 단의 번개의 신인 카윌을 공격한다. 카윌 신이 창에 찔림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평평해졌다'고 표현된 왕족들이다.

첸(Tzen)은 먹인다, 누구를 유지시킨다는 뜻으로 번역된다. 체니(Tzeni)는 어린이를 키운다는 뜻이다. 즉 1(운) 아하우에게 영양이 주어졌다. 옥수수 신은 칼라흐(ka'lah)의 요소로 언급되었다. 칼라흐(K'alah)가 매인다는 뜻으로 동쪽에서 뜨는 저녁 셋별이라고 생각하면, 체니(tzeni)는 먹인다는 뜻으로 서쪽에서 지는 셋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즉 k'alah는 별이 나타나는 모습, tzeni는 별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항상 네 개의 별들의 위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셋별이 떠오를 때 주위에 있는 별들은 칠면조, 전갈, 큰새[?],

16) 마야의 달력 체계의 하나로 일년의 이름이다. 즉 음력의 양의 해, 호랑이의 해 같은 것이다. 세 개의 체계 중, 이 고문서에서는 고전기에 사용하였던 "엡-카반-익-마닉"을 썼다.

17) 마야의 달력 체계, 앞의 다섯 숫자로서 현재 태양력의 년, 월, 일을 알 수 있고, 뒤쪽의 둘은 마야의 종교력이다. 현재와 비교하면 예를 들어 2003년 3월 3일(다섯섯자), 삼짓날(종교력)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의 신이고 셋별이 질 때 있는 별들은 칠면조, 전갈, 까마귀, 큰 새[?]이다. 셋별의 나타남과 관련 있는 별들은 전갈, 쌍둥이, 수병, 사자와 아리에스인데 이들이 칠면조, 까마귀, 전갈 등 본문에 나오는 어떤 별들과 합치되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47쪽

[...] u muk te to'k ba	별에 대한 예언
[...] Hun Kanal (Tzek Ahaw)	1 하늘 수염 난 신
K'alah nah bird Chak Ek'	셋별이 북쪽의 큰새[?]에 매인다
K'alah chik'in [...] Chak Ek'	셋별이 서쪽 신[?]에 매인다
K'alah nohol oxlahun Kan Chak Ek'	셋별이 남쪽 13하늘에 매인다
K'alah lak'in Kan Pawahtun Chak Ek'	셋별이 동쪽 4 과와흐툼에 매인다
K'alah lak'in	동쪽으로 매인 것은
Lahun chan chak Ek'	라훈 칸
Chak Boloy u hul	재규어는 창에 찔렸다
U muk yol	덜힌 것은 ? 신의 구멍
K'u yah si way ahaw	(신); 태어난 나왈 ¹⁸⁾ 신에게 재난
Ox k'uhul yah ??	3 구멍내는 자들이[?]에게 재난을
Kimi Chak Ek' lak'in	까마귀는 셋별을동쪽에서(먹인다)
? bird Chak Ek' nah	큰새는 셋별을 북쪽에서 (먹인다)
??? Chak Ek' chik'in	신(?) 셋별을 서쪽에서 (먹인다)
oxlahun Kan Chak Ek' nohol	13 하늘 셋별을 남쪽에서(먹인다)
Hun u tun [...]	한 해 [...] 나쁜 바람
Tok'bate yah tzul ahaw	흑요석칼의 전쟁, 개신에게 재난
U muk k'anawah	[외국인에 대한 ?] 예언
Yah muk kakatunal	무덤[?]에 재난 카카투날

(Schele & Grube, 1997: 146)

새해 달력은 카반(Kaban)해의 수호신으로서 재규어가 묘사되었다. 937년은 카반(Kaban)해이다(R. Bricker & M. Bricker, 1992).

셋별 라훈 칸이 행동할 때는 나쁜 바람이 불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셋별이 떠오를 때에 보이는 별들은 큰 새(?), 서쪽

18) Nahual, 메소아메리카에서 모든 사물이 각각 지니고 있는 정령 같은 것이다.

신, 13 하늘, 4 파와흐툰이다. 셋별이 사라질 때 보이는 별들은 까마귀, 큰 새, 신(?), 13 하늘이다. 착볼로이는 재규어를 의미하는 것 같다. 재규어는 마야에서 왕권을 상징한다. 즉 어떤 의미로든지 왕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말하고 있다. 흑요석 칼은 인신공양 등에서 사용되는 신성한 칼이다. 고든 위터커는 카카투날(Kaktunal)을 멕시코 고원의 신으로, 역시 셋별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다.

48쪽

[...] ahaw le ox wi il	지배함, 많은 음식
nikil sak huk	꽃들, 하얀 줄무늬
[...]	[?]
puchil ti [...]	[?]으로부터의 독즙은
u muk winik	사람을 위한 예언이다
K'alah nah K'in Ahaw Chak Ek'	셋별이 북쪽 태양신에 매인다
K'alah chik'in Wak Yich Chak Ek'	셋별이 서쪽 6 이치에 매인다
K'alah nohol Ak'ab Ahaw Chak Ek'	셋별이 남쪽 밤의 신에게 매인다
K'alah lak'in Ixik Uh Ahaw Chak Ek'	셋별이 동쪽 숙녀달 신에게 매인다
k'alah lak'in	동쪽으로 매인 것은
tawisikal Chak Ek'	틀라우이스칼판테쿠틀리 셋별
Nal u hul	옥수수신은 창에 찢렸다
u muk lak'in	그의 무덤은 동쪽에
tu kab tu kun	그의 땅에, 그의 옥좌에
u muk kunal	그의 옥좌의 무덤
tzeni Kan- Pawahtun lak'in	4 파와흐툰을 동쪽에서 먹인다
tzeni K'in Ahaw nah	태양신을 북쪽에서 먹인다
tzeni Wak Yich chik'in	6 이치를 서쪽에서 먹인다
tzeni Ak'ab Ahaw nohol	밤의 신을 남쪽에서 먹인다
Ox ti uh, ox tu winik	세달, 세달[달력?]
U muk k'antenal	칸테날의 무덤
Ahaw u muk	아하우, 무덤
Lak'in wuk h'anal	동쪽의 7 샘에서

(Schele & Grube, 1997: 146)

938년은 익(Ik)해로, 옥수수신은 익(Ik)해의 수호신이다. 옥수수 신이 창에 의해 찢리고 있다(R. Bricker & M. Bricker, 1992).

셋별이 떠오를 때에 보이는 별들은 태양 신, 이치, 달의 신, 숙녀 달 신 4 파와흐툼이다. 셋별이 사라질 때 보이는 별들은 4 파와흐툼, 태양 신, 이치, 밤의 신이다.

고든 위테이커는(1985)는 셋별을 멕시코고원의 신인 타위스칼(Tawiskal)로 썼다고 했다. 셋별은 동쪽으로 들어왔다. 즉 저녁별이다. 이 모습으로 나타난 셋별은 옥수수로 대표되는 농작물 보다는 마야인의 최초의 조상인 옥수수신에게 영향을 주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성스러운 장소인 칸테날에 나쁜 영향을 준다.

49쪽

[...]	
u muk tz'ak ahaw	계승왕의 무덤
ahay tok' te ba	패배와 별
[...]	[?]
u muk	무덤의
yan kab	지구에 재난
yah [...] winik [...]	[?] 사람[?]에게 재난
K'alah naj ??? Chak Ek'	북쪽의 칠면조에 매였다
K'alah chik'in death Chak Ek'	서쪽의 전갈에 매였다
K'alah nohol K'awil Chak Ek'	남쪽의 큰[?]에 매였다
K'alah lak'in Hun Ahaw Chak Ek'	동쪽의 죽음의 신에 매였다
k'alah lak'in	동쪽에 매인 것은
Chak Xiwitel Chak Ek'	착 시위텔, 셋별
k'an a [...] u hul	(신은) 창에 찢렸다
u muk K'in ahaw	태양신의 무덤
u muk K'awil	카윌의 무덤
u muk wak yaxil winik	처음의 여섯 사람들의 재난
Tzeni Ixih Uh Chak Ek' lak in	셋별이 동쪽에서 달의여신을 먹인다
Tzeni [...] Chak Ek' nah	셋별이 북쪽에서[?] 먹인다
Tzeni Kimi Chak Ek' chik'in	셋별이 서쪽에서 죽음의 신을 먹인다
Tzeni K'awil Chak Ek' nohol	셋별이 남쪽에서 카윌을 먹인다

wuk ti uh	7 달
wuk winik	7 월
wa[.] nal kan[...]	[?]
u muk [...]	무덤의
u muk yahaw su	수 신의 무덤

(Schele & Grube, 1997: 147)

셋별이 떠오를 때에 보이는 별들은 칠면조, 전갈, 큰새(?), 죽음의 신이다. 셋별이 사라질 때 보이는 별들은 달의 여신, [?], 죽음의 신과 카윌이다. 순서대로 본다면 마닉(Manik)해일 것으로 창에 찢린 신은 마닉해의 수호신일 것이다.

태양 신, 이치, 달의 신 칼 토베는 시위텔(Xiwitel)을 멕시코 고원의 시우테쿠틀리(Xiutecutli)와 연관하여 셋별로 읽었다. 셋별 신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고 또 피부는 표범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새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50 쪽

Hun Ahaw Chak Ek'	1 아하우 셋별
K'o Kun k'in ahaw	위 둘 태양신
Xul K'in	날의 마지막
Xul Hab	해의 마지막
U muk Kan[.].	4의 불길한 예언
K'a wah ha [...]	음식과 물을 너무 먹었다
Sak Hun [...]	하얀 머리띠
U muk kunal	옥좌들에 대한 예언
K'alah nah Nal Chak Ek'	북쪽의 옥수수의 신에 매였다
K'alah chik'in God L Chak Ek'	서쪽의 L신에 매였다
K'alah nohol wuk'[...]Chak Ek'	남쪽의 다람쥐에 매였다
K'alah lak'in ain Chak Ek'	동쪽의 까마귀에 매였다
K'alah lak'in	동쪽으로 매인 것은
Kakatunal Chak Ek'	카카투날, 셋별
Tz'u-[...] u hul	Q신(?)은 창에 찢렸다
U muk k'u	묻힌 것은 신들이다
U muk tz'ak ahaw	묻힌 것은 왕족들이다

U muk Nal	묻힌 것은 옥수수신이다
Tzeni Hun-Ahaw Chak Ek' lak'in	셋별이 1아하우를 동쪽에서 먹인다
Tzeni Nal Chak Ek' nah	셋별이 옥수수신을 북쪽에서 먹인다
Tzeni God L Chak Ek' chik'in	셋별이 L신을 서쪽에서 먹인다
Tzeni Wuk-[...] Chak Ek' nohol	셋별이 다람쥐를 남쪽에서 먹인다

Lahun uh winik	열달-월
U muk	그의 무덤,
Ka yax K'an u muk	2 [?] 무덤의
Sak ta-ba [...] u muk	하양[?] 무덤의
Tz'ul chik'in	서쪽으로부터 온 외국인

(Schele & Grube, 1997: 147)

셋별이 떠오를 때에 보이는 별들은 옥수수 신, L 신, 다람쥐, 까마귀이다. 셋별이 사라질 때 보이는 별들은 1 아하우, 옥수수 신, L 신, 다람쥐이다.

마지막에 묘사된 재앙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얀 머리띠는 죽음을 의미한다. 신, 왕족과 옥수수 신이 묻히는 것으로 마야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45쪽에는 다음 쪽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대략이 쓰여 있다. 왼쪽에는 셋별 주기율표가 오른 쪽에는 사건이 쓰여져 있다. 46쪽에서 50쪽까지의 공통점은 셋으로 나누어진 첫 단은 사람 모습의 존재가 하늘의 띠¹⁹⁾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해석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셋별이 움직이게 되었다. 즉 다섯 셋별신의 등장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신들은 하늘의 띠를 상징하는 의자 위에 앉아있다. 그들이 쓴 관과 손에 든 것, 얼굴의 모습으로 보아 셋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각각의 쪽에서 등장하는 셋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단에는 다섯 가지의 다른 모습의 셋별이 공격하는 모습이다. 애브니(1997: 75)에 의하면

19) 별, 달, 월식, 쪼개짐 등을 반복적으로 그려진 띠로서 팔렌케의 석판의 부조 장식으로 확인되었다.

셋별은 다섯 가지의 다른 움직임의 궤적을 갖고 있다. 세 번째 단은 공격을 당하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인다. 동사 야(yah)는 상처를 입히다, 손상을 입힌다는 뜻인데, 46쪽부터 50쪽의 가운데의 그림들이 창을 찌르고 있는 셋별신이 다른 신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셋별의 등장은 창으로 공격하는 전사로서 지상에,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임을 보인다. 앞 장에서 본 비문에서도 셋별이 특정한 위치에 있었던 날 왕위 계승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써 셋별의 변화는 왕좌의 변동을 일으켰다고 해석된다.

첫째 단 두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단 두 번째 문단에는 옆에 그려진 셋별주기율 위에 쓰여진 내용도 번역하였다. 매인다와 먹인다의 동사로 반복되는 이 문장들은 셋별이 움직이는 다른 주위의 성좌의 움직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매였다는 셋별이 뜰 때의 다른 성좌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먹인다는 셋별이 질 때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인다. 셋별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네 별자리들을 확인한다면, 칠면조, 전갈, 까마귀 등등으로 표현된 마야의 별자리가 어떤 별을 뜻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 번역 하지 않은 주기율표(모두 숫자이다)의 첫 번째 열은 새벽별로서의 셋별의 마지막 보이는 날을 기록한다, 두 번째 열은 저녁별로서의 첫 번째 나타남을 세 번째 열은 저녁별로서 마지막 보이는 날을 취급한다. 네 번째 열은 새벽별로서의 첫 번째 나타남을 보인다(Schle & Grube 1997: 144-5). 즉 8, 250, 90, 236일의 간격이 시작 또는 마지막의 날짜이다. 애브니(1999: 179)는 1)셋별이 새벽에 출현하는 기간(마야 사람들은 이 기간을 236일로 잡았다) 2)해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기간(90일) 3)저녁에 출현하는 기간(250일) 4)해에 다시 가려지는 기간(8일)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두를 합하면 584일로 셋별의 한 주기가 된다. 동시에 이 네 열이 다섯번 반복되어 셋별의 5회합주기, 2920일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서의 셋별은 모두 동쪽으로 들어온다. 위치로 보아 저녁별을 상징한다. 이들은 각각 L신, 10하늘, 타위스칼, 착 시위텔, 착 카

카투날로 불린다. 처음 들은 마야 이름이나 나머지 셋은 멕시코 고원 문명의 표현(타위스칼, 시위텔, 카카투날)과 마야어(착)가 섞여있다. 앞 장에서 전쟁에 이길 때는 셋별이 새벽별일 경우이었다. 즉 저녁별일 경우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왕좌에 변동이 있었음을 보았다. 카카투날이나 시위텔이 서리 또는 새벽의 추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농작물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6쪽과 47쪽은 각각의 해의 수호신(카윌과 재규어)이 셋별 전사의 희생물로서 가운데 단에 묘사되었다. 즉 이 해에 일어날 나쁜 일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운스베리(F. Lounsbury)는 천문학적 관찰에 의하면 셋별 주기표는 10세기 후반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애브니(1999: 192)는 드레스덴의 셋별주기표는 만들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2세기 동안 축적된 관측자료 들을 한데 모아 재구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마야 고문서가 후기 고전기에 작성되고, 멕시코 고원 문명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발견된 지역이 후기 고전기의 중심 유적지인 치첸 이차 근처였다고 추정되는 것과 매우 연대가 일치한다. 그렇게 되면 마야 관찰자들은 셋별 주기표를 구성, 교정하는 작업을 200년 이상동안 하였을 것이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셋별이 동쪽하늘에 나타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견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정확해야만 셋별이 가져오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주기율표는 셋별 전사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보다는 셋별의 공격을 예상하고 경고하고 있다. 재난을 대비한다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함일 것이다. 즉 드레스덴 고문서의 셋별의 이야기는 고전기 마야에서 하늘을 열심히 관찰한 이유와는 달리 비록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있으나 실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맺는 말

셋별은 달 이외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로서 아침과 저녁에 가장 일찍, 또 가장 늦게 까지 보이며, 해가 셋별의 위로 뜨는 경우와 아래에 뜨는 경우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이 있는 독특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다섯 종류의 다른 주행방식을 보이고 있다. 셋별의 사라짐이 실질적으로 마야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직 좀 더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나,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셋별의 움직임은 마야 사람들에게 관찰되었고, 농작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삶에 영향을 주는 셋별의 운동은 신들의 움직임으로 해석되었다. 셋별 신이 지구에 창을 던져 한발, 농작물의 잃어버림, 늪은이, 어린이와 주권자의 죽음 또는 특정한 동물의 죽음을 일으키곤 하였다고 믿어졌다. 마야사회에서는 셋별의 움직임에 따라 왕권의 계승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고, 셋별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시기에는 전쟁을 통하여 포로를 잡아 인신공양을 함으로써 별의 운동을 바로 잡고자 했다. 왕은 하늘의 별들의 운행이 제대로 됨으로써 지상의 모든 일도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자였다. 그는 별의 일을 하는 존재였다. 별의 일을 하는 왕의 절대성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마야 사람들의 최초의 이야기는 셋별과 해의 모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들의 삶은 우나푸와 스발란케로 알려진 신들의 등장에서 비롯된다. 마야 사람들은 이들을 기리는 피라미드를 세움으로써 문명을 시작하였다. 왕은 셋별로 상징되는 우나푸의 후계자이며 지상에서 그들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였다. 즉 왕은 셋별의 대리자였다. 왕들은 셋별을 상징하는 문양을 장식으로 쓰며 왕으로서의 일을 수행할 때 표적으로 사용하였다.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전쟁과 제전의 수행과 기록, 그에 따른 피라미드와 부속물의 건축이었다. 이렇게 고전기 마야의 복잡한 체계로 발전한 사회는 그러한 왕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따랐다. 그러나 약 10세기 경 유카탄 반도의 중부와 과테말라의 페

텐(Peten)을 중심으로 하여 번성하였던 고전기 마야 문명이 기울어지고 문명의 중심부는 유카탄 반도의 북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였다. 후기 고전기에 와서도 셋별의 중요성은 계속되었다. 한편 그들은 좀 더 실용적인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에는 첫 문장을 날짜로 시작하는 비문의 제작은 거의 하지 않으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식, 월식과 셋별의 주기표를 만들어 남겼다. 주기율 표는 언제 재난이 올 것인가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단순히 별을 관찰하는 것 이외에 예측과 지배를 지배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왕권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셋별은 단순한 조상신에서 날개-뱀(쿠쿨칸)신으로 바뀌었다. 날개와 뱀이 상징하는 하늘과 땅의 지배는 고전기 마야와는 다른, 좀 더 조직적이며 전체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대에 따라 준 영향은 달랐을지라도 셋별의 움직임은 마야 사회의 전체를 흔들었다.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하여 피라미드를 세웠으며, 관찰한 별들의 운동을 기록하기 위하여 문자를 만들었고, 마침내는 사회 자체가 별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되었다. 마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천체의 움직임의 관찰에 모든 것을 쏟았을까? 별의 움직임은 계절적인 비와 마야 사람들의 주식인 옥수수 경작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들이 이렇게 셋별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된 데에는 이런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실제적인 이유로 하늘을 관찰하는 가운데 끝없이 변화하는 하늘의 세계를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하늘을 보았지만, 또한 언제인가는 똑 같은 지점에 되돌아오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Abstract

La civilización maya tiene muchos registros del acontecimiento astral. Especialmente los mayas observaron el movimiento del Venus. Ellos hicieron el primer pirámide decorado por las caras que simbolizan el Sol

y el Venus. Los reyes mayas realizaron el ritual imitada de la trayectoria astral y dirigieron las guerras por la desaparición y la aparición del Venus. El Venus creó la civilización de Maya Clásica. La importancia del Venus continuó al periodo Posclásico. Se crearon las tablas de eclipse del Sol y la Luna, y de Venus, Aunque los reyes utilizaron los símbolos del Venus ya no se encuentran los registros de la guerra.

Key Words: Civilización Maya, Acontecimiento Astral, Venus, Guerra, Códice Dresden / 마야문명, 천체현상, 셋별, 전쟁, 드레스덴고문서

논문투고일자: 2003. 10. 15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 에브리, 앤토니(1997), *별을 향한 길*, (박병철 역), 영림 카디널.
 광영직/김충섭(2002), *별자리*, 여사이언스북스.
 토베, 칼(1998), *아즈텍과 마야 신화*, (이응균/천경효 역), 범우사.
 마야인의 성서: 포폴부 (1999), (고혜선 역), 문학과 지성사.
- Arrellano Hernandez, Alfonso(2001), “Guerras Venusianas entre los Mayas”, *Arqueología Mexicana*, No. 47, pp. 36-41.
- Bricker, Victoria R. & Harvey M. Bricker(1992a), “A Method for Cross-Dating Almanacs with Tables in the Dresden Codex”, in Anthony Aveni(ed.), *The Sky in Mayan Literature*, pp. 43-86.
- _____ (1992b), “Zodiacal References in the Maya Codeces”, in Anthony Aveni(ed.), *The Sky in Mayan Literature*, pp. 148-182.
- Códice de Dresde*(1993),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Freidel, David et al.(1993), *Maya Cosmos: Three Thousand Years on the Shaman's Path*, New York: William Morrow.
- Grube, Nikolei(ed.)(2001), *Maya: Di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Germany: Konemann.
- Hammond, Norman(1985), “The Sun is Hid: Classic depictions of Maya Myth”, in Merle Green Robertson & Elizabeth Benson(eds.), *Fourth Palenque Round Table*, San Francisco: The Pre-Colombian Art Research Institute, pp. 167-174.
- Hendrickson, Carol(1989), “Twin Gods and Quiche Rulers: The relation between divine power and kingly rule in the Popol Vuh”, in William Hanks & Don Rice(eds.), *Word and Image in Maya Culture*, Salt Lake City, USA : University of Utah Press, pp. 129-139.
- Knorozov, Yurii(1982), *Maya Hieroglyphic Codices*, New York: Institute for Mesoamerican Studi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 Miller, Mary(1995), "Bonampak", *Arqueología Mexicana*, No. 16, pp. 48-55.
- _____ (2002), "Reconstrucción de los Murales de Bonampak", *Arqueología Mexicana*, No. 55, pp. 44-55.
- Miller, Virginia E.(1985), "The Dwarf Motif in Classic Maya Art", in Merle Green Robertson & Elizabeth Benson(eds.), *Fourth Palenque Round Table*, San Francisco: The Pre-Colombian Art Research Institute, pp. 141-154.
- _____ (1989), "Star Warriors at Chichen Itza", in William Hanks & Don Rice(eds.), *Word and Image in Maya Culture*, Salt Lake city, USA : University of Utah Press, pp. 287-305.
- Pérez Suárez, Tomás(2000), "Pintores y escultores del Mundo Maya", in *Arqueología Mexicana*, No. 42, pp. 60-67.
- Pickand, Martin(1980), "The First Father legend in Maya Mythology and Iconography", in Merle Green Robertson(ed.), *Third Palenque Round Table*,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124-137.
- Rivera Dorado, Miguel(1987), "Una Interpretacion del mito de Hunapu e Xbalanque", in Mercedes de la Garza(ed.), *Memoria del Primer Coloquio Internacional*, Mexico D.F.: UNAM, pp. 1115-1132.
- Schele, Linda & David Freidel(1990), *A Forest of Kings: The Untold Story of the Ancient Maya*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 Schele, Linda & Nikolai Grube(1994), *Tlaloc-Venus Warfare: The Peten Wars 8.17.0.0-9.15.13.0.0*, Notebook for the 18st Maya Hierglyphic Forum at Texas, Austin: University of Texas.
- Schele, Linda & Nikolai Grube(1997), *The Dresden Codex*, Notebook for the 21st Maya Hierglyphic Forum at Texas, Austin: University of Texas.
- Schele, Linda & Mary Ellen Miller(1986), *The Blood of Kings: Dynasty*

and Ritual in Maya Art, London: Thames and Hudson Inc.

Schele, Linda & Peter Mathews(1998), *The Code of Kings: The Language of Seven Sacred Maya Temples and Tombs*, New York: Scribner.

Tedlock, Dennis(1992), "Myth, Math, and the Problem of Correlation in Mayan Books", in Anthony Aveni(ed.), *The Sky in Mayan Literatur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7-274.

Tedlock, Dennis(1993), *Popol Vuh: El libro Maya del albor y de la vida y las glorias de Dioses y Reyes*, Mexico D.F.: Editorial DIANA.